

主題

IMT-2000으로 여는 새천년-LG텔레콤

LG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남 용

차례

- 제 1 장 회사소개
- 제 2 장 2000년을 도약의 해로
- 제 3 장 IMT-2000으로 여는 새천년
- 제 4 장 무선인터넷의 선도주자
- 제 5 장 무선데이터서비스의 성지
- 제 6 장 정통부도 인정한 통화품질 1위
- 제 7 장 세계가 신뢰하는 네트워크
- 제 8 장 특급호텔 수준의 고객센터
- 제 9 장 앞서가는 글로벌 통신

제 1 장 회사소개

LG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CDMA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LG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6년 7월 설립되어 국내에서 PCS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LG텔레콤은 99년말 현재 기지국 2,000여개와 광중계국(Fiber Optic Remote Antenna System) 4,800여개를 설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가운데 최대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의 교환망과 전송망 모두가 뛰어난 통화품질을 구현하는 광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LG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시킨 광중계국은 경제적인 투자로 음영지역을 모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동통신분야의 획기적인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단말기 관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단말기를 선택하여 공급하는 머친다이징 능력을 보유하여 현재 20여종의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98년 2월 세계 최초로 CDMA방식의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을 비롯해 세계 최초 이지방송채널 실시, 국내 최초 무선인터넷 상용화 등으로 무선데이터서비스에서 신기원을 이룩했으며, 기술력의 우월성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이동전화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서비스는 IMT-2000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LG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것은 물론 콘텐츠를 가장 많이 확보함으로써 데이터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 지사를 설치

하고 CDG(CDMA개발그룹)와 OHG(세계 통신사업자그룹) 멤버로서 활동.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통합표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98년 10월에는 영국 BT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4억 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제 2 장 2000년을 도약의 해로

LG텔레콤은 IMT-2000사업권 획득과 수익성 극대화를 통한 흑자경영 정착을 최대 경영목표로 정하고, 400만명의 가입자와 2조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2000년 경영계획을 내놓았다.

2000년 경영계획은 무선 인터넷/데이터서비스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 종합 데이터통신기업으로의 확고한 위상을 다짐으로써 IMT-2000사업권을 반드시 획득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순증 90만명에 총 4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1,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 계획으로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일하게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유무선통합 인터넷서비스를 선도해 온 만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연말까지 300만명을 확보해 업계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별화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매출 중에 데이터의 매출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무선인터넷/데이터서비스 대표기업으로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연말까지 무선인터넷 '019이치웹'의 콘텐츠를 1,000여개로 확대하고 WAP단말기를 200만대 이상을 대량 공급하는 한편, 무선으로 신용카드를 결제가 가능한 에어체크, 사이버 주식거래, 원거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격점검, 유무선 통합한 PCS폰 내장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데이터서비스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LG텔레콤은 019만의 브랜드인 '수퍼클래스' 및 'YES서비스'로 우수고객과 알뜰가입자를 차별화시켜 마케팅을 전개하는 동시에 무선인터넷/데이터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 현재 310만명의 가입자를 연말까지 순증 90만명에 총 4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과 네트워크상의 사업운영 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혼심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업체인 BT 등 선진 통신기업의 오랜 사업경험과 운용노하우에 대한 벤치마킹과 마케팅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최적의 Cost구조 실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3 장 IMT-2000으로 여는 새천년

LG텔레콤은 단말기 하나로 세계 어디서나 음성통화와 고속 데이터통신은 물론 영상 및 화상통신까지 가능한 '꿈의 통신' IMT-2000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한 LG텔레콤은 이제 유·무선과 인터넷, PC통신을 연계, 고객에게 종합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인 IMT-2000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국내 순수기술만으로 99년 4월 동기식과 6월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 실험국을 동시에 운영, IMT-2000사업에 필요한 운영기술 및 전파특성 등의 연구로 국내 사업자중 가장 내실있는 IMT-2000 사업준비를 착실히 전개해 나가며 최적의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통신사업자들이 IMT-2000시스템의 무선전송을 통합표준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CDMA시스템이 원활히 IMT-2000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국내의 기술요구 사항을 통합표준안에 반영시키는 등 차세대 통신의 기술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PCS 사업초기 단계부터 IMT-2000사업을 고려해 현재의 PCS망을 구축함으로써 IMT-2000진화 시 자연스럽게 PCS망과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최적의 통신망 구성은 물론 차세대 통신망으로의 진화계획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망 구축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IMT-2000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LG텔레콤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자 능력이다.

나아가 LG텔레콤은 차세대 핵심기술 및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차세대서비스, 최적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제 4 장 무선인터넷 선도주자

21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대한 줄기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에 이동성을 부가한 움직이는 무선인터넷, LG텔레콤이 가장 먼저 열었다. LG텔레콤이 가장 앞선 이동 네트워크의 기술로 자유로운 무선인터넷 세상, 개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 최강자의 기반을 확고히 한 LG텔레콤은 98년 2월 전세계 CDMA진영에서는 최초로 회선(서킷)방식의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회선과 패킷방식을 동시에 제공, 국내 유일의 네트워크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주축으로 셀방식의 위치정보서비스, 원격검침서비스, 무선카드결제서비스 등 국내 유일한 데이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뱅킹서비스, 모바일컴퓨팅, 전자금융서비스 등 IMT-2000의 전단계 서비스를 자신있게 선보인 바 있다.

LG텔레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

하는 네트워크 기술의 최정점을 정복하고 무선인터넷 시대를 여는 등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 왔다.

국내 처음으로 99년 5월 노트북, 핸드헬드PC, PDA 등 별도의 장비없이 PCS폰 하나로 인터넷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019이지웹서비스'가 그 단적인 사례이다.

HDML(Handheld Device Markup Language) 웹브라우저 상용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한 폰다콤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019이지웹서비스'는 기존의 노트북PC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무선데이터서비스와는 달리, 웹 브라우저가 내장된 PCS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 HDML로 구축된 사이트를 PCS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웹페이지 주소(URL)를 PCS폰에 직접 입력해 접속할 수 있어 PCS를 통한 인터넷 접속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LG텔레콤은 인터넷 메일발신, 전자우편 착신통보/ 청구/ 답장, 증권 정보검색 등 기존의 제한된 인터넷서비스를 뛰어넘어 PCS폰을 통해 공연/영화/스포츠경기 입장권 예매, 항공권과 열차표 예매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PCS폰으로 받은 예약번호를 입구에서 보여주지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마패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도서와 CD 및 음반 등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서비스는 물론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의 영업사원이 외근중에 주문을 받을 경우 자사 기업망에 접속, 주문내용을 직접 입력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 업무수행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편익을 위해 실시간 주식 주문 및 체결, 은행계좌 조회 및 송금, 신용카드 이용내역 조회, 콘도예약, 골프부킹은 물론 전화번호 수첩

을 휴대하지 않아도 HDML서버에 접속, 입력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고 약속 시각 등의 개인일정관리도 가능하다.

타 이동전화업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는 기존의 SMS(Short Message Service) 기법을 이용한 서비스로 암호화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전자상거래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IP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으나, 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 완벽한 전자상거래는 물론 전세계 HDML로 구축된 사이트 검색과 제한적이지만 그래픽까지 전송이 가능한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텔레콤은 019이지웹서비스를 IMT-2000의 전단계 서비스로 확정하고 관련 업체와의 활발한 제휴를 통해 국내 최대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그래픽이나 동화상도 전송할 수 있도록 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선인터넷과 무선데이터 부문에서 다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비중을 현격히 끌어올려 나가도록 할 것이다.

LG텔레콤은 데이터서비스 개발에서부터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에 이르기까지 PCS폰 하나만 손안에서 펼쳐지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종합 데이터통신 기업이미지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제 5 장 무선데이터서비스의 성지

'96년 CDMA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LG텔레콤은 '98년 2월 CDMA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무선데이터서비스 상용화에도 성공, 세계로부터 이동통신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회선방식과 패킷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동중에도 인터넷 접속, PC통신 검색, 팩스 및 전자우편 송수신 등이 가능한 무선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의 구현은 국내 통

신환경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무선데이터서비스는 휴대폰을 노트북, 핸드PC 등을 연결하여 데이터나 화상을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뎀에 의존한 기존의 유선접속 방법을 무선영역으로 확장시킨 최첨단 통신 서비스이다.

무선 접속속도 4 ~ 5초로 기존의 회선방식보다 5배나 빠른 패킷방식은 접속빈도수가 많고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적합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터넷 망 및 데이터망에 접속되어 인터넷이나 기업컴퓨터 접속이 가능하다.

현장사원의 본사와의 각종 문서연락은 물론 이동뱅킹 및 증권영업, 원격 신용카드 조회, 보험 생활 설계사 업무, 현장 A/S, 원격방법, 교통관리 등 자주 접속이 필요한 업무에 이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데이터망으로 직접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기업의 컴퓨터에 접속시 편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는 달리 회선방식은 데이터량이 많고 수시로 접속할 필요가 없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며, PCS 가입자간 1대1접속이 가능해 문서나 서류 등을 직접 송수신하기가 편리하다.

특히 패킷방식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팩스 송수신에 적합하고, 현재 PC통신의 접속방법과 동일한 다이얼업 방식으로 접속돼 PC통신, 증권조회/거래 체결, 기사송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편리하다.

현재 LG텔레콤 회선방식의 경우 동부증권은 이 방식을 활용, 증권영업에 사용하고 있고 서해대교 건설 현장에서는 다리 안전성을 점검하는 원격 점검에 쓰이고 있다.

나아가 무선데이터서비스는 단순 데이터의 송수신은 물론 금융, 증권, 사회안전, 물류, 원격점검, 인터넷사업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응용, 고효율 사회를 실현하는 미래 핵심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텔레콤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영상 및 화상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광대역CDMA 기술과 연계, 개발하여 IMT-2000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제 6 장 정통부도 인정한 통화품질 1위

99년 9월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 서비스 통화품질 측정결과 LG텔레콤은 우리나라 5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접속성공률과 통화단절률에서 당당히 전국 평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LG텔레콤은 PCS 3개사 대비, 14개 부문 중 13개 부문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LG텔레콤이 한국 지형에 꼭 맞는 '한국형 전파전달특성 모델'을 개발하여 철저한 환경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요소요소에 기지국 및 광중계국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망을 구축한 결과이다.

또한 국내 최다인 총 8,000여개의 디지털 무선국을 구축, 기술적 지수가 아닌 고객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통화품질과 통화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력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수준의 망 설계와 기지국 구축, 최첨단 시스템 운용 등 고품질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LG텔레콤은 지형 환경에 따라 광중계국·중계기·초소형중계기로 통화품질은 물론 통화영역 심화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중도시, 시군지역, 고속도로, 국도 등 7개 지역에서 접속성공률과 통화단절률에 대한 통화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최상의 통화품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통신시설투자 부문에서만 5,700억원을 투자, 금년에

도 통화품질에서 업계 최정상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의한 신기술 및 첨단장비 개발,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으뜸망을 구축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 7 장 세계가 신뢰하는 네트워크

LG텔레콤의 네트워크 구축 전략은 월드베스트 네트워크이다. 월드베스트 네트워크는 최고의 통화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로, CDMA기술과 광중계국(L'COTA), 그리고 전국단일망의 총체적 결합체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전파환경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설계 능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의한 신기술 및 첨단장비,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하나가 되어 월드베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1. '한국형 전파전달특성모델' 적용

LG텔레콤은 산악과 도심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춰 전파특성을 연구, 산악지형에 적합한 매크로셀과 도심지역 서비스를 위한 마이크로셀의 모형을 결합시킨 망설계 기술인 "한국형 전파전달특성모델"을 개발, 적용하여 최적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지형에 가장 적합한 기지국의 위치선정과 안테나의 높이, 기지국 전파출력 결정 등 전국망 최적화 작업에 적용한 모델로, 획기적인 투자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이 모델의 활용으로 기존 모델에 비해 기지국 수

를 20%이상 줄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망을 구성했으며, 이미 자체 개발한 무선망 설계 프로그램인 LGPlan에 적용하여 고주파대역을 사용하는 IMT-2000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 전국을 하나로 잇는 단일망

LG텔레콤은 타사와는 달리 전국을 단일 장비와 단일 기술로 이동전화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전국단일망을 구축했다. 이는 혼합망에서 생기는 끊김 현상을 해소하였고, 교환 시스템간 소프트 핸드오프도 완벽하게 구현해 어디서나 빠르고 깨끗한 통화 품질을 보장한다.

또한 예견되는 향후 시스템 성능 향상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끊김 없는 광통신PCS

LG텔레콤은 기지국간 통신망을 8천km에 달하는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통신 선로 및 기지국에 이상이 발생해도 대도시와 광역권의 통신망이 끊어지지 않는 Ring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의 통신망은 끊김이 없는 우수한 통화품질과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향후 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완벽하게 지원한다.

4. 작지만 파워있는 광중계국(L'COTA)

LG텔레콤은 이동통신망 개념의 혁신적인 새기술인 광중계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투자부담을 줄이면서도 서비스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광중계국을 개발하여 전국망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광중계국은 필요한 지역에 원격의 소형 안테나를 설치, 기지국과의 사이를 100% 순수 광케이블로 연결해 전송 손실이 없

는 빛을 통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존 기지국에 비해 투자 비용은 1/10밖에 들지 않는 반면 기지국 하나당 통화 영역을 최대 12배까지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철탑이나 컨테이너가 필요없이 도심속 가로등, 건물벽면 등에 간단히 슬레이브(광안테나)를 설치, 도심속 빌딩은 물론 산간 벽지 등 기존의 통화음영지역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제 8 장 특급호텔 수준의 고객서비스

1. 고객서비스

LG텔레콤은 서울의 중앙 고객센터와 호남 고객센터와 영남 고객센터 등 전국에 3개 콜 센터에서 전문 지식과 철저한 고객만족 마인드를 갖춘 전문 상담원이 모든 고객의 문의 사항을 단 한번의 전화로 해결해 주는 One Call One Stop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서울 고객센터 300여명, 부산 고객센터 150여명, 호남 고객센터 150여명 등 전국에 총 600여명의 전문 상담원은 물론 각 지역센터의 상담원들이 최첨단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 CTI(Computer Telephony Intergration)기술을 통해 고객의 문의시 해당고객의 가입자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고객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문의에 답변을 PCS폰, 전화, 팩스, PC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상담자료를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FOD(Fax On Demand)서비스와 080서비스, 자동안내응답시스템(ARS)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24시간 고객상담을 제공하는 사이버 고객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 사이버 시대 21세기 미래지향의 고객상담을 선도하고 있다.

2. 고객지원시스템(CSBS)

고객지원시스템(CSBS, Customer Service & Billing System)은 고객 등록에서부터 요금 부과 및 청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객지원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고 불완전 콜까지 감지하는 첨단전산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부가서비스, 판촉 등에 따른 신규요금변화를 1일 이내에 반영할 수 있고 가입자 증대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해 시스템 증설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LG텔레콤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유리한 요금체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온 라인 과금까지도 처리하는 최첨단시스템으로 고객 편의와 신뢰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LG텔레콤은 CSBS를 통해 소비자의 통화 패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채택과 함께 한 가족이 동일인 명의로 2~4대를 가입할 경우 가족간 PCS 통화시 통화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가족요금제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제 9 장 앞서가는 글로벌 통신

LG텔레콤은 그동안 우리의 통신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며 한국 통신산업의 기술력을 한단계 올려놓았다.

통신시장 개방과 함께 완전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이제는 국내에서 갖춘 경쟁력과 CDMA기술을 토대로 차세대 핵

심부품 국산화, 해외운영사업 참여, IMT-2000 기술 표준화 등 세계화 전략을 활발히 전개하며 글로벌 통신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LG텔레콤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기술의 아웃소싱, 세계 최고 전문가에 의한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등을 통해 ISDN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 CDMA기술과 IMT-2000 등 핵심기술을 조기 개발하는 한편, 차세대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 무선 영상전화 등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초일류 기업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BT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해외시장 진출, 차세대 통신기술 공동개발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LG텔레콤은 세계 정상급의 인재들로 구성된 세계적 모범기업으로 만들어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보급을 주도하며 WIN-WIN 전략을 통한 초우량 종합 정보통신 사업자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세계화 전략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한국의 LG텔레콤에서 세계의 LG텔레콤'으로 우뚝서 나갈 것이다.

남 용

1976. 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6. 1.	LG전자주식회사(金星社) 入社
1989. 3.	Group회장실 경영혁신추진본부장 이사
1993. 3.	상무이사
1996. 3.	전무이사
1997. 3.	부사장
1997. 12.	LG전자 Multimedia 사업본부장
1998. 10~현재	LG TeleCom 대표이사 사장